

한불 120주년 기념, 프랑스에서 출간돼 화제가 된 책 리더스 다이제스트도 인정한 《한국, 수다로 풀다》의 저자 이다도시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지난 5월 8일, KBS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나오는 이다도시(39)를 KBS 내 커 피숍에서 만났다.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프랑스에서 카네이션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대신 선물을 받았다”며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하는 그녀에게서 ‘올라라 아줌마’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불수교 120주년이었던 2006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돼 화제를 일으켰던 《Ida au pays du Matin Calme(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온 이다)》가 올해 4월 《한국, 수다로 풀다》로 번역 출간됐다. 작년에 책을 출간한 이후 프랑스의 유력 방송사인 TF1, M6 Europe1 등에서 저자 인터뷰가 쇄도했을 만큼 그녀가 쓴 책은 한국문화를 알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한국에 와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후 방송에다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부터는 일기 쓸 여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제 한국 땅을 밟은 것 같은데 벌써 15년째 살아요. 쓰면 쓸수록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은지... 15년간의 삶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독자들에게 전달할 만한 정보는 무엇인지,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가려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었지요.”

이다도시는 《이다도시의 행복공감》《참 맛있는 프랑스 요리》《이다도시의 생활체험 프랑스식 감성교육법》을 한국어로 낸 적이 있다. 글쓰기를 좋아하던 그녀는 ‘J.C.라테스’ 출판사에서 그녀의 인생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 수 있게 써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다빈치코드》를 출판한 J.C.라테스의 출판 제의에 귀가 솔깃할 법도 하지만, 한 나라를 알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에서 선뜻 오케이 사인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출판사의 끈질긴 구애 끝에 쓰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경제지표라든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확인절차까지 밟았어요. 마감 2개월을 앞두고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살았고, 밤에는 아이들 재우고 글을 썼어요.”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대학원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석사학위를 받은 이다도시는 대학원 시절 한국에서의 실습기간이 인상 깊어 박사과정을 미루고 다시 1년 취업비자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연세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하게 됐고, 남편 서창수 씨를 만나 1993년에 결혼한 후 1996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두 아들 유진(10)과 태진(3)이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방송인, 한국인으로 살기까지, 그녀의 삶은 J.C.라테스가 주문한대로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이다. 《한국, 수다로 풀다》에는 잠시 머물다 간다는 생각이 한국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게 만든 사연들, 프랑스인으로서 본 한국,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국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출판사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Ida au pays du Matin Calme》을 ‘여행’ 카테고리의 단행본으로 선택해 올해 말 3만 5천부를 인쇄해 판매할 예정이다. 

